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 주디스 버틀러의 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

김현정 · 임은혁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부교수

Gender Identity Expression in Contemporary Men's Fashion

- Focus on Judith Butler's Gender Identity Theory -

Hyun Jung Kim · Eun Hyuk Yim⁺

Doctori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received date: 2014. 10. 25, revised data: 2015. 1. 28, accepted date: 2015. 3. 2)

ABSTRACT

Dress functions as a clear boundary between gender differences in the past. However, in the 21st century, due to the movement of feminism during the 1960's, the advance of mass media and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the boundary of gender differences has been blurred. Especially in men's fashion, where there were no little changes in traditional menswear, it is noteworthy that there appears some changes.

The research about gender has developed to queer theory, which is based on gender itself, founded on gender d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duct the implied meanings of dress in contemporary society, when gender diversity has been expressed in men's fashion, and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men's fashion through the collections and advertisements of post 2000's as well as internet site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theory of Judith Butler, which is on the center of feminism and queer theory. Homosexual expressions which are presented in male clothing and advertisement produce rejection of the dichotomous view of gender concept and allowing of individual gender identity expression.

Key words: gender identity(성 정체성), Judith Butler(주디스 버틀러), masculinity(남성성), men's fashion(남성패션), queer theory(퀴어 이론)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1세기 패션은 전통적인 성 역할의 변화와 함께 여성과 남성의 복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의 원인은 성 역할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 사회의 성 역할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여권 신장 운동에서 시작된 페미니즘, 매스미디어의 발달,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으로 점차 와해되었다. 이렇게 전통적인 성 역할이 변화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생산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복식에도 커다란 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대 이후 전통적 남성복식이 성립된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던 남성복에서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성(sex)과 성별(gender)의 구분은 페미니즘과 관련이 있는데 성은 남성과 여성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말하며, 성별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분류를 의미한다. 생물학적 육체가 성을 결정하지만 문화의 산물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성은 그 사회의 사회적 규범, 교육방식, 언어, 문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젠더에 대한 연구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젠더 개념을 확장하여 성 차이뿐만 아니라 성 지향성, 성 역할, 성 정체성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차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담론이자 학문적 분과로서의 젠더 연구로 발전해 왔다. 이런 점에서 젠더 연구는 성의 다양성에 입각하여 젠더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퀴어 이론(queer theory)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서양철학, 특히 헤겔 연구를 바탕으로 정체성에 관해 깊이 연구한 미국의 '젠더 이론', '퀴어 이론'의 대표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Min, 2011), 종전의 페미니즘이 집착해 온 성과 젠더의 구분은 자연과 문화, 몸과 정신, 존재와 과정 등의 이분법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녀의 저서 『젠더 트러블 (Gender trouble, 1990)』에서 젠더의 개념을 수행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에 의해 구성되는 가변적인 것이

라는 개념으로 대체시키며 퀴어 이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퀴어 이론은 현재 페미니즘, 나아가 성과 성 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대체하는 광범위한 논의로도 작용하고 있다. 버틀러의 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동시대의 페미니즘 사조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으며(Min, 2011), 정체되어 있던 남성복식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젠더 표현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의 중심부에 있는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의 특징을 살펴보고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남성성과 관련하여 남성복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hn & Lee(2000), Kim(2007), Soe(2005), Song & Chea(2000)은 남성성의 역사적 변화와 함께 그에 따라 나타난 복식의 양상을 연구하였다. An(2006)과 Kim, Je Kai, & Lee(2010)는 남성복식과 관련된 섹슈얼리티의 표현 양상을 연구하였다. Chung & Yang(2004), Lee & Kim(2012)는 게이와 드래그 같은 동성애적 관점에서 남성성과 복식에 관해 연구하였다. 남성성의 역사적 변화와 그 변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남성의 관능성, 양성성과 같은 젠더의 특성에 따른 남성의 복식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들의 남성성 변화에 따른 남성복식의 특징을 역사적 흐름을 통해 살펴보고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남성의 젠더를 분류하여 분류한 젠더를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남성복식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조사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암시적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남성성의 표현을 전통적인 젠더 관습에 도전하는 방식이자 개인의 취향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열린 사고로 남성 복식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로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화된 젠더 정체성의 특징이 반영된 디자인을 위한 표현 양상과 함축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현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젠더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19세기 전통적 남성성을 대표하는 수트의 착장

이 정립된 이후 1,2차 세계대전, 포스트모더니즘, 매스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20세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남성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복식에서 이러한 남성성의 구성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퀴어 이론의 중심부에 있는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을 관련 서적, 논문, 기사 등의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남성성과 남성복식의 변화 양상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 결과와 버틀러의 젠더 이론을 바탕으로 남성의 젠더를 분류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컬렉션과 패션 잡지 광고, www.firstview.com 등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사진 자료를 통해 사례 조사를 하여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 표현의 방식과 내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1세기 해체주의적 관점인 퀴어 이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남성성과 복식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함의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선별 기준으로 복식 디자인에 있어서 젠더 및 지배담론에 저항적·해체적 경향을 가진 디자이너로서 현대 남성복에 많은 변화를 주어 남성복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적인 컬렉션에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톰 브라운(Thom Browne)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남성성의 변화와 남성복식

1) 산업혁명~19세기 후반 : 전통적 남성성의 성립과 남성복식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란 두 종류의 젠더에 관한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남성이 된다는 것과 여성이 된다는 것에 엄격한 구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분류체계는 산업 혁명 이후 서구 사회에서는 공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에서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산업적, 사상적 엘리트

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부르주아 계급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이성(異姓)에 바탕을 둔 남성성의 문화로, 남성은 가정에서 나아가 사회에서 독재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부장제의 강화를 가져왔으며, 동성애를 탄압하고 이성애만을 유일한 감성으로 통용시켰다. 부르주아 계급의 남성들은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나타낼 수 있는 신분의 상징적 역할로서 복식을 이용하였다. 그들의 복식은 장식성이 배제된 엄숙하고 실용적인 수트로 권위성, 강건성, 근대성이라는 미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전형적인 남성적 이미지로 고정되었다(Lee, 2003). 남성의 수트는 성적 매력을 억제하는데 남성의 몸을 '보이지 않게'하면서 관능성과 무관한 것으로 만들며, 공적인 영역에서 남성성을 대표하게 되었다(Entwistle, 2013).

2) 20세기 전반 : 전통적 남성성의 변화

1차, 2차 세계대전은 군사적 남성성을 통해 전통적 남성성을 강화시켰다. 이는 영웅적, 전투적, 남성동맹적 이데올로기는 전시의 군복을 통해 재현되었으며, 강인함과 충실함, 권력과 지배를 의미하는 군사적 남성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성동맹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파생된 동성애적 암시를 드러내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남성 수트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일, 성공, 강함 등과 조합을 유지하고 있었다(Entwistle, 2013). 그러나 이러한 수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1,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감에 따라 남성중심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해 강대국의 된 미국의 영향은 남성복식의 정형화된 스타일을 가볍고 밝게 바꾸기 시작했다. 스포츠의 확산 및 여가의 보편화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기성복 산업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남성 수트는 엄격함에서 벗어나 편안함과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적 스타일로 변화하게 된다. 1950년대 후반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저항으로 등장한 테디 보이(Teddy boy)와 모즈(Mods)같은 하위 문화의 출현은 기존의 사회계층이나 성의 관념에 대한 도전으로 성의 혼돈을 초래하였다(Entwistle, 2013).

3) 20세기 후반 : 전통적 남성성의 해체

현대 남성복식에서 젠더의 다양한 표현은 1950년대 후반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저항으로 등장한 하위문화의 출현으로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는 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여성운동이 시작되면서 성 역할의 변화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까지 바꾸어 놓았다. 페미니즘은 첫 번째 단계인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한 투쟁에서 시작하여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시기를 지나, 여성과 남성 모두가 주체 속의 타자를 인정하는 해체론적 입장으로 발전해 왔다. 여성해방 운동은 남성이 남성상을 재고하게 하였고, 그 산물인 남성 해방 운동은 새롭고 다양한 남성상을 낳았다. 남녀평등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의도와 함께 시작되어 남녀가 완전히 동일한 복식을 공유하는 중성적 이미지의 유니섹스 모드는 60년대 복식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었고 이후 스포츠 웨어와 캐주얼 웨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Ahn & Lee, 2000).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의 도전은 1970년대 이후 대중음악, 특히 데이빗 보위(David Bowie)나 록시 뮤직(Roxy Music)과 같은 글램 록 밴드들의 뚜렷한 메이크업, 매니큐어, 과장된 의상 등 노골적인 복장도착에서 전면화 되었다(Choi, 2009).

198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복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로 페미니즘도 양성성(Androgyny)을 통해 남녀공동의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Ahn & Lee, 2000). 이러한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뉴 맨(New Man)은 새로운 남성성을 형성했는데, 과거에 여성성과 결합되었던 쾌락적 소비의 탐닉, 허영, 성적 대상화와 관련하여 남성의 몸에 대한 에로티시즘을 부각시켰다(Entwistle, 2013). 1980년대에 이르러 남성들은 성적으로 응시의 대상이 되었고, 남성의 근육은 관능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해체주의적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남녀 이분법을 해체시키고 성의 차이를 무효화함으로써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성별로 시선을 돌려 성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역사적

로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Shin, 2004). 이러한 해체적 젠더 이론의 중심에 있는 주디스 버틀러는 이분법적 대립항의 해체를 모색하고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하는 사회로의 문을 열었으며 억압적인 정체성을 강요하는 지배담론을 벗어나 해체적 남성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 복식에서도 이전에 비해 남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현저하게 부각시키면서 여성미와 남성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타나났는데 이는 더 이상 복식이 성을 구별하는 도구가 아니며 복식의 사회적 상징성과 성 정체성의 정의를 해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2000년대 초반

젠더에 대한 해체주의적 사고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남성복식에서도 여성성과 남성성을 교차하면서 다양한 젠더의 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대변하는 남성젠더에 대한 키워드로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위버섹슈얼(Ubersexual), 크로스섹슈얼(Crosssexual)이 있다(Kim, Je Kai, & Lee, 2010).

특히 크로스섹슈얼은 성에 대한 정체성은 정상이나 이성의 옷 자체가 자극 대상물인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과 달리 이성의 옷 자체보다는 이성의 몸 자체가 자극 대상물로서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거부한다(Kim, 2004). 전통적인 성 개념에서 벗어난 게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미국의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가 2000년도에 방영되었고, 2005년도에 방영되었던 미국의 예능 프로그램인 '퀴어 아이(Queer eye)'는 다소 생소한 퀴어 개념을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Kim, 2007). 퀴어는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를 지칭하는 포괄적 언어로 성 취향의 표준적인 이성애에 거스르는 위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버틀러에 따르면 고정된 본질보다는 퀴어의 수행성을 강조한다(Baek, 2014). 즉, 젠더는 당대 사회문화적 질서 안에서 반복된 행위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 취향으로 보려는 경

<Table 1> Change of Masculinity and Man's Dressing

	Socio-cultural background	Men's Dressing	Connotative Meaning of Man's Dressing	Expression of Masculinity	
Late 19th centu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owth of the Bourgeois Class Patriarchy/Reason-oriented Society Man-oriented dichotomous ge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it (Jacket/pants/v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presentative dressing in an official area Meaning of authority, solemnity, robustness, etc. Exclusion of sensual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thority exclusive of sensuality, solemn masculinity <p>traditional masculinity</p>
Early 20th centu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ld War 1 & 2 Women's entry into society Change of a lifestyle (Spread of sports & leisure life) Appearance of Sub-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litary look American Style Teddy Boy look Mods lo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pearance of strong masculinity due to the unrest of traditional masculinity Alleviation of formality of traditional men's clothing style(bright color, light materials) Introduction of sensuality as a meaning of resistance to traditional masculinity-Restructuring of masculin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phasis on masculinity-Macho masculinity -Sensual masculinity <p>Resistant masculinity</p>
Late 20th centu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pearance of feminism which acknowledged the gender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an (radicalism) Post-modernism De-constructivism Appearance of deconstructive feminism which deconstructs the dichotomy of man & wo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i-sex look casual wear Androgenous look New 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xual characteristics aren't revealed due to neutralization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Androgyne expressing all the characteristics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desirably Resistance to traditional masculinity through introduction of sensuality through the emphasis on bodily beau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roduction of femininity-Asexuality -Androgyne Emphasis on Masculinity
Early 21st centu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read of de-constructive tendency of gender De-construction of the dichotomous gender fr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Metro-sexual Ubersexual Cross-sexual → Genderless lo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shows an androgenous tendency, but doesn't lose masculinity. It has a masculine characteristic but it doesn't suppress women. Homosexual inclin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roduction of femininity Emphasis on masculinity Homosexual expression <p>Deconstructive masculinity</p>

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0년대 남성의 젠더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넘나들면서 성 정체성 표현 및 신체와 복식에 대한 새로운 표현 방식 등을 통해 다양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시대별로 살펴본 남성성의 변화와 남성복식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1>과 같다.

2.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본 장에서는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을 Cho(2001)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수행적 젠더, 복

중적 젠더, 우울증적 젠더, 패러디적 젠더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1) 수행적 젠더 정체성 : 행위의 반복적 수행을 통한 젠더의 재의미화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적인 남성 그리고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과 문화적 성 정체성이 일치해야만 한다. 버틀러는 이러한 성 정체성의 일치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회 규범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것은 반복 속에서 일시적인 주체를 구성하는 행위이자, 몸이며, 담론적 규제이다. 주체는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존재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양식, 육체의 양식, 담론의 양식 속에서 수행적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수행적 젠더는 행위, 몸, 담론의 양식으로 반복과 인용 속에 언제나 새롭게 재의미화된다(Cho, 2001). 즉, 젠더는 어떤 사람의 본질적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젠더 정체성은 개인의 행위 속에서 창조되며, 젠더 정체성이 행위를 통해 수행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고유한 젠더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구성된다는 의미가 된다(Cho, 2001).

버틀러에 의하면 몸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 담론의 의미화 과정을 거친 역사적 구성물이다. 즉,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Simone de Beauvoir(1992)의 말처럼 여성이 된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역사적 개념을 몸에 익히고,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서 몸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미화 시키는 것이다(p. 342).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란 사실 반복적으로 주입되고 각인되는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젠더 정체성이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젠더의 주체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당대 사회가 남성적인 것이라고 허용된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남성인 것이다.

2) 복종으로서의 젠더 정체성 : 권력의 복종과 반항의 양가성의 젠더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주체가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기 위해 권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역설적이면서도 양가적이다(Cho, 2001). 권력이 주체를 억압하는 동시에 주체의 존재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주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주체는 그 권력에 복종하여 권력을 유지시키는 일부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주체성을 형성한다(Cho, 2001). 주체가 권력에 복종한다는 것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이며, 복종의 반복적인 수행은 주체를 형성 시킨다. 이러한 당대 지배 권력에 복종하는 주체는 지배 문화의 젠더 규범을 수용하면서 젠더화된 주체가 되는 것이다. 개인의 젠더 정체성은 이데올로기, 젠더 규범이라는 타자

에 의해 획득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주체는 이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당대 권력의 담론을 수용하게 된다.

주체 역시 이중적 방법으로 권력에 대응한다. 복종은 주체의 종속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체화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역설적이다. 주체는 당대의 규범을 반복하면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그 반복 속에는 언제나 재발화의 가능성이 들어 있다(Cho, 2001).

주체는 권력에 복종함으로써 주체가 되지만 여전히 권력에 흡수되지 않는 잔여물을 남긴다. 이처럼 복종의 양면성은 주체가 법이나 권력에 복종하면서도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잉여부분을 남김으로써 복종 아닌 복종을 하는 주체의 양상을 보여준다(Cho, 2001).

주체는 지배 담론에 복종해서 주체가 되지만 완벽하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의미화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역설적 복종은 주체가 지배 권력에 완전히 순응하는 순간 그것에 저항하면서 발생한다. 그래서 주체는 기존 사회관계와 권력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생산하며 변화한다. 버틀러가 말하는 주체는 우리가 무엇이다 말하기에 앞서 모든 형태의 고정된 정체성을 거부하는 부정(不定)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3) 프로이트의 우울증으로서의 젠더 정체성 : 거부된 동일시로 우울한 젠더

프로이트는 『애도와 우울증(Mourning-Melancholia, 1917)』에서 상실된 애정의 대상에 대한 주체의 두 가지 반응을 애도와 우울증으로 설명한다(Butler, 2008). 애도는 갑작스럽게 애정의 대상을 상실한 결과 리비도를 철회하면서 일정 기간 외부 세계에 관심과 의욕을 잃는 것 이지만, 우울증은 자기가 무엇을 상실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이며,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애도자가 사랑했던 대상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데 실패할 때 나타난다(Cho, 2001). 이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도자의 무의식에 남아 영원히 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즉 젠더는 자기 안에 이미 타자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Cho, 2001).

버틀러에게 우울증적 정체성은 '부인된 애착(disavowed attachment)'을 전제로 한다(Cho, 2001). 남성성은 여성성에의 애착을, 여성성은 남성성에의 애착을 거부하면서 젠더를 형성한다. 우울증적 동일시가 상실의 주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거부된 타자를 상상적으로 합체하는 것이라면, 남성성이나 여성성은 자신의 내부에 거부된 타자로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불완전하게 합체하는 우울증적 젠더라고 할 수 있다(Cho, 2001).

이성애자 남녀가 자신의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동성애자가 상대 이성의 젠더를 더 과장하여 표현한다면 겉으로 표현된 젠더 특성은 억압하거나 거부해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Cho, 2001). 동성애를 거부하는 정상적 이성애자는 우울증속에서 거부된 동성애적 사랑을 보유하고, 이성애적 욕망을 공개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는 동성애자는 합체라는 우울증의 구조를 통해 이성애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다(Cho,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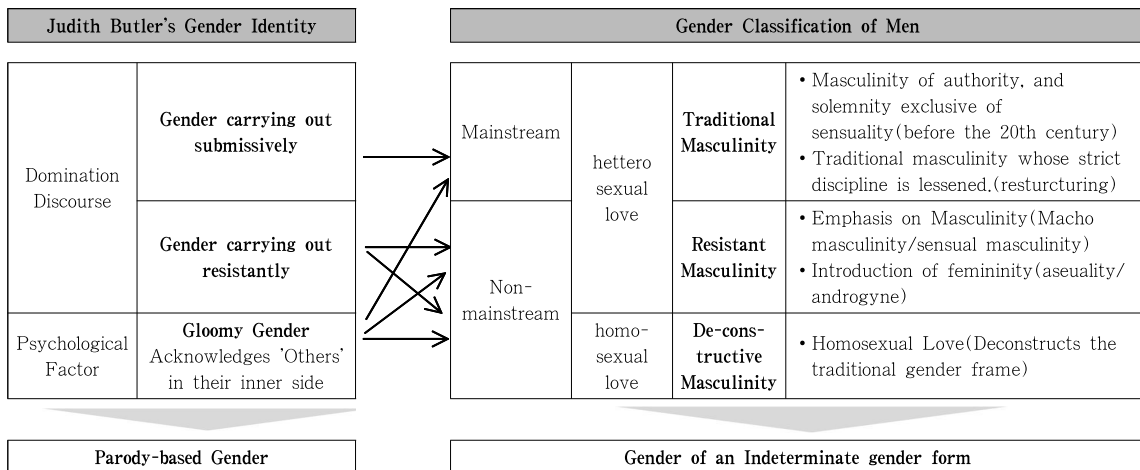
4) 패러디적 젠더 정체성 : 원본과 모방의 경계를 허무는 젠더

패러디는 원본에 대한 의도적 모방으로, 린다 허천(Linda Hutcheon)에 따르면 패러디는 비평적 차이

를 가지고 원본을 모사, 조롱, 아이러닉하게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열등하거나 저급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패러디는 모방의 한 형식이지만 패러디된 작품을 희생시키지 않는 모방이고 '차이'와 '비평적 거리'를 가진 반복이기 때문이다(Hutcheon, 1985). 반면 버틀러는 패러디를 논의하면서 중요시한 것은 '모방' 그 자체이다. 버틀러에 의하면 모방행위가 발생하면 이미 그 순간 원본과 모방본의 구분은 불가능해진다. 모방본이 모방하고 있는 것은 원본이 아니라 원본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는 이상적 자질이기 때문이다.

드랙(Drag)을 진정한 여성성에 대한 모방으로 간주하거나 동성애를 이성애에 대한 모방으로 간주하게 되면 원본으로서 여성성이나 남성성 및 정상적 이성애의 구축은 불가능하게 된다(Cho, 2001). 이러한 관점에서 근원적 젠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성 동성애자 사이에 남성의 역할을 하는 부치(butch)나 여성의 역할을 하는 팜므(femme)는 진정한 젠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허구적 이상을 모방해서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된다. 여성이 남성성을 가장하거나 여성성을 가장한다는 것은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이차적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Cho, 2001). 이성애적 남녀구도가 동

<Table 2> Judith Butler's Classification of Masculinity consequent on Gender Identity



성에 안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 남녀의 젠더 특성 자체가 모방의 구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버틀러는 모든 젠더는 모방의 구조에 입각해 보면 원본과 모방본의 구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진정한 남성성이나 여성성도 불가능하게 되고 이성애가 동성애보다 우월한 원본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지배담론이 만든 하나의 이상적 구성물에 불과하며, '원래' 여성스러운 것도 '원래' 남성스러운 것도 없는 것이다(Cho, 2006).

버틀러의 젠더는 모든 것은 가변적으로 반복적 행위 중에 결정되며 이러한 반복적 행위 속에 항상 새로운 의미로의 길은 열려 있고 내 안에 타자를 안고 있는 주체이다. 즉 원래 정해진 젠더가 없는 페러디적 젠더임을 뜻하며 이는 21세기 남성의 젠더 특징 즉 단일한 젠더를 부정하며 본질적인 것이 없는 부정형의 젠더의 특성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연구한 남성의 젠더 분류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배담론에 복종적으로 수행한 남성의 젠더는 전통적 남성성, 저항적으로 수행한 젠더는 저항적 남성성과 해체적 남성성으로 분류하였고, 동성애를 거부하는 이성애자는 우울증속에서 거부된 동성애적 사랑을 보유하고, 동성애자는 합체라는 우울증의 구조를 통해 이성애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Ⅲ.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의 특성

현대 남성의 복식에 나타난 젠더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대별로 남성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복식의 특징과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을 고찰하여 남성 젠더를 전통적 남성성, 저항적 남성성, 해체적 남성성으로 분류하였다.

1. 전통적 남성성

전통적 남성성은 사회의 지배적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이성적인', '권력이 있는', '강한' 등의 형용사로 대표되며, 복식에서는 남성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허벅지를 강조하는 슈트로 대표되며 사회에서 지배적 권력을 갖는 강한 남성적 이미지를 추구한다. 서구 근대화 이후 부르주아들의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우월성을 가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경직되고 엄숙한 남성의 이미지와 통합되어, 장식이 없고 단순한 반면 재질감과 재단에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복식을 사용하였다. 2000년 이후 남성복에서도 엄숙하고 경직된 슈트가 전통적 남성성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Fig. 1).

반면 포스트모더니즘,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1990년대 해체주의적 페미니즘, 즉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의 등장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이 혼



<Fig. 1> 2012 F/W
Dolce & Gabbana
(style.com, n.d.-a)



<Fig. 2> 2015 S/S
Dolce & Gabbana
(style.com, n.d.-b)



<Fig. 3> 2015 F/W
Alexander McQueen
(style.com, n.d.-c)



<Fig. 4> 2015 F/W
Alexander McQueen
(style.com, n.d.-d)

재되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남성성을 대표하는 수트에도 여성적 요소가 도입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적인 시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전통적인 수트에 여성스러운 컬러와 소재 그리고 디테일을 사용하여 수트의 형식 완화 및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Fig. 3>, <Fig. 4>

2. 저항적 남성성

1) 남성성 강조

(1) 마초적 남성성

마초이즘(machoism)은 여성과 관련된 남성우월적 시각과 관련되며 건장하고 근육질적인 남성다움의 과장으로 나타난다. 마초적 남성성은 주로 전쟁과 군사, 스포츠 등의 영향으로 20세기 전반부까지 상당수 존재했으며, 근육질이고 강한 군사적 남성성은 역사적으로 파시즘의 전체주의에 근간한 국가중심주의적으로 훈련된 남성적 통치체계로부터 형성되었다(Choi, 2009). 이러한 마초적 남성성은 1960년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남성의 위기의식에 따른 과저지향적인 남성의 환상을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의 영향으로 남성성에 대한 의미가 재구조화되면서 마초적 남성성도 타협을 하여 위버섹슈얼과 같은 남성상을 낳았는데, 위버섹슈얼은 강한 남성성을 기본으로 관능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공존하게 된다. 2000년대 이후 남성성의 강조는 이상적인 서구사회에서 이상적 신체미의 원형을 제시했던 그리스·로마시대의 남성미로 다비드의 조각상과 같은 완벽한 인체 비례를 가진 남성의 신체를 복식을 통해 과장하여 남성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오히려 전통적 남성성을 과대하게 강조함으로써 남성중심주의적 사고에 대한 저항적 의미로 볼 수 있다. <Fig. 5>는 전통적 수트에서 과장된 어깨 라인과 실루엣으로 강한 남성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상적인 남성상은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현대에서는 남성들에게 하나의 억압으로 볼 수 있다. 수트의 완벽한 비례에서 오는 절제와 강인함을 의미하는 전통적 남성성을 과장된 실

루엣으로 비례를 파괴함으로써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반항하는 현대사회에서 변화된 남성성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Fig. 6>은 이성적 합리주의의 가치를 표현하는 완벽한 비례를 가진 신체를 수트로 표현하였으며, 수트 디자인에 있어서 각 부분의 디테일이 전체적 구조로 통합시킴으로써 마치 완벽한 남성의 인체 비례와 같이 그 자체로 완전성을 갖는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성의 근육을 겉으로 드러냄으로써 수트가 성적 매력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과 달리 건장한 남성의 신체를 과장되게 보여주어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관능적 남성성

관능성은 육체적 성을 반영하는 상태나 행위, 혹은 생물학적 성에 가반을 둔 정체성의 표현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사회적 측면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관능성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범주라기 보다는 특정 사회와 시대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형성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각 시대와 사회문화권에 따라 특정한 성적 행동이 용인되는 기준이 다르며, 거의 모든 시대와 문화권에서 관능성에 대한 시각은 당대 지배문화의 시각에서 제시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An, 2006).

<Fig. 7>과 <Fig. 8>은 공적인 영역에서 남성성의 표준이 되는 전통적인 수트에서 벗어나 현대 패션을 특징짓는 캐주얼화된 복식을 보여준다(Lipovetsky, 1999). 존 갈리아노의 디자인<Fig. 6>의 주제는 '베니스 해변의 거리 용사'로 첼사처럼 뿔뿔한 의상, 문신, 피어싱 등으로 사이버펑크 연재물 속의 거리 군인처럼 강인한 남성성을 표현하였다. 성적 관능과 남성성을 드러내는 코드피스와 같이 남근을 강조한 디테일은 남성의 성적과시를 통해 남성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남성복, 즉 수트에서는 볼 수 없는 성적 측면을 과장하여 보여줌으로써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저항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버틀러에 따르면 이성애자 남녀가 자신의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과장해 표현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된



〈Fig. 5〉 2012 F/W
Thom Browne
(style.com, n.d.-e)



〈Fig. 6〉 2015 S/S Thom
Browne
(style.com, n.d.-f)



〈Fig. 7〉 2007 F/W
Alexander McQueen
(style.com, n.d.-g)



〈Fig. 8〉 2008 S/S
John Galliano
(style.com, n.d.-h)

젠더 특성이 억압되거나 거부해야 할 정체성으로 여긴다. 즉 남성이 지나치게 남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여성성이 불완전하게 합체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강한 남성성을 가지적으로 보여주더라도 그의 내면에는 항상 '여성성'이라는 타자가 우울증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젠더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2) 여성성 도입

산드라 벰(Sandra Bem)이 성 정체성을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의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남

성성은 남성적 특성이 높은 경우이며, 여성성은 여성적 특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미분화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모두 낮은 경우를 말하며, 양성성은 두 성의 바람직한 특성을 모두 공유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Kwon, 2004). 본 연구는 남성복식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남성성에 여성성이 도입되는 경우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질이 모두 낮아 중성화된 경우를 무성성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질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양성성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1) 무성성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징이 모두 낮아 중성화된 경



〈Fig. 9〉 2012 F/W
Dolce & Gabbana
(style.com, n.d.-i)



〈Fig. 10〉 2012 S/S
John Galliano
(style.com, n.d.-j)



〈Fig. 11〉 2012 S/S
Alexander McQueen
(style.com, n.d.-k)



〈Fig.12〉 2011 F/W
John Galliano
(style.com, n.d.-l)

우로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나타난 유니섹스 룩을 시작으로 이후 캐주얼 웨어로 대표된다 <Fig. 9>, <Fig. 10>.

2000년 이후 컬렉션에서는 성적이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무성성의 대표적인 복식인 캐주얼 웨어에서도 관능성과 결합하여 나타났다. 특히 신체 노출을 통한 관능성의 적극적인 표현은 전통적인 남성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을 치장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간주된다 <Fig. 11>, <Fig. 12>.

(2) 양성성

양성성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징이 바람직하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제 3의 성'을 형성하면서 1980년대는 양성 간의 복식아이템을 공유하는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메트로섹슈얼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이 되는 젠더의 특징을 지닌다 <Fig. 13>.

2000년 이후에 나타난 양성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바람직하게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적 특성을 도입하여 오히려 남성성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낭만주의시대에 남성복에서는 마치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듯 바스크벨트(basquebelt)로 허리를 조였다. 코르셋과 같은 이러한 벨트의 의미는

여성의 코르셋과 구별된다. 여성의 코르셋은 남성적 시각에서 시대의 이상적 여성으로서의 여성성 획득을 위한 규제적 제한이었다면, 남성의 허리 벨트는 그 시대의 이상향에 맞게 잘록한 허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자신의 지위나 경제력에 대한 과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4>는 전통적 남성성의 상징인 수트 위에 여성 억압의 상징인 코르셋을 착용함으로써 남성 또한 남성중심사회에서 자신들이 부여한 절대적인 권위에 억압되어 왔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트는 남성의 성적 매력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코르셋을 수트 위에 착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수트의 기능에 도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Fig. 15>는 프랑스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의 디자인으로 여성만이 사용하던 액세서리, 긴 헤어스타일 등 남성에 있어서 금기항목으로 남아 있는 여성적 요소를 도입하여 사회 통념 상 충격적이고 반 전통적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해진 남성의 감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억압된 남성성에 대한 반항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Fig. 16>은 여전히 여성의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는 스커트와 남성의 상징인 테일러드 재킷을 과장된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여 착용함으로써 여성적 요소가 도입이 되어도 남성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강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버틀러의 이론에 입각하여 보면 남성이 자신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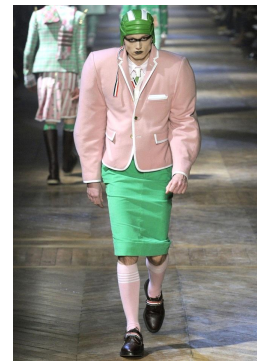
<Fig. 13> 2011 F/W
John Galliano
(style.com, n.d.-m)



<Fig. 14> 2012 F/W Jean
Paul Gaultier
(style.com, n.d.-n)



<Fig. 15> 2011 F/W
Jean Paul Gaultier
(style.com, n.d.-o)



<Fig. 16> 2012 F/W Thom
Browne
(style.com, n.d.-p)

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성의 옷을 입는 것은 원본과 모방본이라는 관점에서 근원적 젠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렇게 여성적 요소가 도입된 복식을 착용하는 것은 물리적인 신체인 남성이 남성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복에서 여성적 요소를 도입한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성적 요소가 가미된 의복을 입어도 자신의 남성성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남성성 강한 남자들의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분법적인 젠더 개념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해체적 남성성 : 동성애적 표현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성들의 동성애를 용납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남성과 미소년의 동성애를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Yun, 1998).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19세기 엄격한 도덕관념을 가진 부르주아 계층이 성장함에 따라 동성애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1960년대에 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여성 해방 운동과 함께 동성애 해방운동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숨어있던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제는 동성애가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운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이 시장에서 막강한 구매파워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광고에서는 이러한 남성복의 동성애적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정상적인 이성애에 반하는 록이나 스타일이 강한 호소력을 지니기 때문에 특정 상품을 부각시키거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구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Scofield, Schmidt(2005)는 게이들이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의복을 사용한다고 했으며, 게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에 맞추어 의복을 다르게 착용한다고 하였다.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상황에 따라 의복을 선택하는 단계, 게이 종종

들이 합의한 의복을 입어 소속감을 느끼는 단계, 게이들이 의복을 통해 자신이 게이임을 알리는 단계로 동성애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를 사용하거나 복식을 사용한다(Lee & Kim, 2012). 복식에서 동성애 이미지는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복장도착적 행위에서 대표적으로 표현된다고 간주되어왔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복장도착이 동성애자와 같이 성 역할이나 성적 취향에 따른 신체적 표시와 관계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며 이성애자들도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이 입증되었다(Soe, 2005).

〈Fig. 17〉은 근육질의 스포티한 남성미를 과시하며, 남성의 육체는 건강, 힘, 정력, 여유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며 육체의 노출을 당연한 것처럼 만든다. 이전에는 여성의 몸만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 대상화되어 왔지만 남성의 몸도 타인의 시선에 대상화되고 관음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Park & Yim, 2013). 더불어 이러한 신체 노출은 남성에게 있어 동성애자를 상징한다. 또한 남성의 유니폼은 강인함과 충실함, 권력과 지배를 뜻하는 군사적 남성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남성동맹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파생된 동성애적 암시도 드러낸다(Choi, 2009)

〈Fig. 18〉은 루치노 비스콘티(Luchino Visconti) 감독의 '지옥에 떨어진 용감한 자들(The Damned)'라는 영화에서 헬무트 베르거(Helmut Berger)가 연기한 나치 크로스 드레서(cross dresser)를 떠오르게 하는 컬렉션으로 탐 브라운의 디자인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히틀러의 나치 정부는 동성애자들을 집단 수용소에 몰아넣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동성애가 가부장적 남성 지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동성애의 탄압은 가부장적 남성 지위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Kim, 2013). 탐 브라운의 컬렉션은 이러한 나치의 동성애 탄압을 가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젠더의 표현은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적 잣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취향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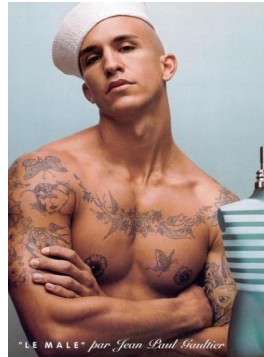
〈Fig. 19〉는 장 폴 고티에의 향수 광고로 피에르와 질(Pierre and Gilles)의 영향을 받아 로코코 양식을 키치로 재해석한 꽃과 새와 나비의 그림으로 장



〈Fig. 17〉 2008 S/S
Jean Paul Gaultier
(style.com, n.d.-r)



〈Fig. 18〉 2014 S/S
Thom Browne
(style.com, n.d.-s)



〈Fig. 19〉 Perfume Ad
Jean Paul Gaultier
(Naver, n.d.)



〈Fig. 20〉 Menswear Ad
Dolce & Gabbana
(Design, n.d.)

식된 문신과 게이 상징인 수병을 등장시켰다. 수병의 이미지는 이성애 사회에서 여학생의 교복, 간호사복 등 유니폼에서 느껴지는 성적환상을 동성애적 이미지로 전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20〉은 돌체 앤 가바나의 남성복 광고 사진이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는 모델 옆에 다른 남성 모델이 팬츠의 지퍼를 올리고 있는 모습으로 마치 성적 행위를 연상 시키는 노골적인 몸짓과 표정 등으로 전통적 젠더 개념에 도전하며 강한 인상을 남겨 주었다.

남성복과 광고에서 나타난 동성애적 표현을 살펴보면 전통적 성 개념에 대한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표현 방식으로 개방과 허용의 의미를 제시하며, 남성 복식에 성적 표현의 다양성을 강화시켜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식의 동성애적 표현에는 마초적 남성성, 관능적 남성성, 양성성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특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복식이 성 역할이나 성적 취향에 따른 신체적 표시와 관계는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버틀러의 주장처럼 남성이란 신체가 남성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복식이 더 이상 성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징 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복식은 성별에 따라 몸을 구분하는 가장 극각적이고 효과적인 예 중 하나였다. 과거의 복식은 성차의 경계선이 매우 뚜렷했으며,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의복을 입으리라는 기대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 이념은 1960년대 페미니즘 운동, 매스미디어의 발달,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해체주의적 페미니즘의 중심부 있는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은 단일한 젠더 개념을 부정하고 수행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에 의해 구성되는 가변적인 것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젠더 개념의 변화는 복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가져왔다. 특히 남성복식은 여성복보다 더 전통적 성 이념에 입각하여 경직되고 엄격한 규칙을 지켜왔는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성 역할에 따른 복식의 특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남성의 젠더를 구분하고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범위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돌체 앤 가바나,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장 폴 고티에, 톰 브라운의 컬렉션과 패션 광고로 정하였으며

현대 남성복의 젠더 표현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시대에 따른 남성성의 변화와 남성복식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버틀러의 젠더 이론을 바탕으로 남성의 젠더를 당대 지배 담론에 복종적으로 수행된 젠더는 전통적 남성성, 저항적으로 수행한 젠더는 저항적 남성성과 해체적 남성성으로 구분하여 남성복식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남성성은 20세기 이전에 성립되었던 근대성, 근엄함, 엄격함을 대변하는 근대적인 남성성과 함께 20세기 이후 서서히 규율이 완화되면서 전통적인 남성성의 의미를 재구성한 완화된 남성성이 공존함을 알 수 있었다. 밝은 색상과 부드러운 소재 그리고 무늬 등 여성적인 요소가 도입되어 나타나 완화된 전통적 남성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저항적 남성성은 남성성의 강조와 여성성 도입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남성성 강조에는 전통적인 남성우월적 사고의 마초적 남성성과 남성의 이상적 신체미를 드러내는 관능적 남성성으로 분류하였다. 마초적 남성성과 관능적 남성성 모두 남성적 특성을 과장하여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복식에서도 과장된 실루엣으로 비대칭적인 슈트로 표현하거나, 남성의 상징인 남근, 건장한 근육 등을 드러내며 '보여주는' 슈트로 재탄생하는 등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전통성에 대한 반항으로 볼 수 있다.

여성성 도입은 양성의 특징이 모두 낮을 경우 무성성, 양성의 특질이 바람직하게 나타나는 것을 양성성이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성성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은 스포츠웨어나 캐주얼웨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무성적 젠더의 특징을 지닌 캐주얼웨어나 스포츠웨어에 남성의 신체를 드러내어 관능적 성격을 띠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0년대 양성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적 특성을 도입하여 오히려 남성성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적 요소가 가미된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성을 절충하여 무성의 이미지나 부드러운 이미지로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성의 도입은 전통적 남

성 복식에서 금기시 하는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전통적인 젠더관습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볼 수 있으며, 여성적 요소가 가미된 의복을 입어도 자신의 남성성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남성성 강한 남자들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해체적 남성성은 남성복과 패션광고에서 나타난 동성애적 표현으로 강력한 남성적 이미지의 제복, 이를 상징하는 수병 이미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몸짓과 표정 등으로 전통적 성 개념에 대한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개방적 사고방식을 제시하며, 남성 복식에 성적 표현의 다양성을 강화시켜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식의 동성애적 표현에는 마초적 남성성, 관능적 남성성, 양성성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특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복식이 성 역할이나 성적 취향에 따른 신체적 표시와 관계는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남성 젠더의 특성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젠더 특성별 복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복식이 더 이상 젠더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즉, 젠더 때문에 복식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복식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 정체성, 나아가 주체성 자체가 가변적인 것으로 보는 버틀러의 이론은 억압적인 정체성을 강제하는 지배 담론에서 벗어나 현재 권력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차이들을 진보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전통적인 남성성을 강요받던 남성들에게 감추어둔 욕구를 표출하여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Ahn, S. H. & Lee, K. H. (2000). The analysis of the transitional aspect of gender expressed in the later 20th centu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4(5), 86-97.
- An, H. J. (2006).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ity expression in the contemporary men's fashion. *Journal*

- of the Korea Society of Costume, 9(2), 77-91.
- Baek, S. J. (2014). From gay to queer.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32(1), 235-258.
- Cho, H. S. (2001). Judith Butler's gender identity theory : Focused on parody, performativity, subjection, and melancholia.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9(1), 179-207.
- Cho, H. S. (2006). Gender and the other as seen through the eyes of queer. *The Journal of Asian Women*, 45(2), 315-322.
- Choi, K. H. (2009). *Sex in fashion*. Seoul, Republic of Korea: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 Chung, S. H. & Yang, S. H. (2004). The study on Drag queen's and Drag king's fash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stume*, 54(7), 135-150.
- Joanne, E. (2013). *The fashioned body*. (G. H. Choi,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HanSung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Judith, B. (2008). *Gender trouble*. (H. S. Cho, Trans.).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MUNHAK-DONGNE Publishing Corp.(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Kim, C. Y. (2007). *A gender characteristic in contemporary men's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Kim, C. Y, Je Kai, M. & Lee, Y. H. (2010). Gender characteristics in contemporary men's fashion: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etrosexual and ubersexual.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stume*, 60(7), 1-13.
- Kim, H. L. (2013). *Nazism and homosexuality*. Seoul, Republic of Korea: Moonji Publishing Co.,Ltd.
- Kim, M. J. (2004). *Lectures on costume aesthetics 2* [복식미학강의 2].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Kyomunsa.
- Kwon, G. Y. (2004). The study of ambiguous sex identity appearing in fashion advertisements.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8(1), 100-111.
- Lee, H. J. & Kim, H. A. (2009). A study on the pink color image expressed in the 21th century men's fashion.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8(4), 891-902.
- Lee, M. S. (2003). Power and aesthetic images in men's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1(2), 177-192.
- Lee, M. S. & Kim, M. J. (2012). The characteristic of the clothing behavior of gay men according to gay identity: Focusing on the drama 'queer as folk'.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stume*, 62(6), 1-18.
- Lipovetsky, D. (1999). *L'empire de l'éphémère*. (D. J.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Moonye. (Original work published 1987)
- Min, G. S. (2011). How to read the gender theory of Judith Butle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16(1), 1-17.
- Park, S. J. & Yim, E. H. (2013). Discourse on the male body represented in fashion advertisemen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stume*, 63(6), 29-39.
- Kate, S. & Ruth A. S. (2005). Fashion and clothing: The construction and communication of gay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33(4), 310-323.
- Simone de Beauvoir (1992). *Le Deuxième sexe*(4). (H. Y.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Dong-suhpress.
- Shin, H. D. (2004).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feminism on modern fashion photograph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Soe, E. H. (2005). *A study on sexual identity in men's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 I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Song, M. J. & Chae, K. S. (2000). The aspects of sex expression in contemporary men's fash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4(2), 133-144.
- Yun, G. H. (1998). *Sex culture and psychology*. Seoul, Republic of Korea: Hakjisa.